로타리와 폴리오 핵심정보

폴리오. 폴리오(소아마비)는 오늘날까지 전세계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사지를 마비시켜 불구로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다. 소아마비 야생 바이러스는 사람의 신경계에 침투하여 불과 수시간 만에 사지를 마비시킨다. 어느 연령대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특히 5 세 이하의 유아들이 취약하다.

오늘날의 현황. 오늘날, 소아마비 야생 바이러스 감염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발병국은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3 개국이다. 2012 년 한 해 동안의 발병건수는 250 건 미만을 기록, 하루에 1,000 건 이상이 발병하던 1980 년대에 비해 99%가 감소되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노력에서 후퇴할 경우, 40 년 이내에 1,000 만 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전. 잔존하는 1%의 소아마비 발병 사례들은 지리적 고립, 열악한 보건 인프라, 무력 분쟁, 문화적 장벽 등으로 가장 퇴치가 어려운 경우들이다. 소아마비 퇴치가 완료되는 그 날까지 모든 국가에는 돌발적인 발병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성공의 확신. 소아마비 퇴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 로타리와 게이츠재단의 새로운 캠페인에 힘입어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로타리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3,500 만 달러까지 게이츠재단에서 1 대 2 로 상응받게 된다. 이러한 기금은 매우 시급한 운영 지원비, 의료 인력, 실험 장비, 그리고 보건 요원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기부자들은 모두 기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폴리오플러스. 로타리는 지난 1985 년, 최초의 글로벌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인 폴리오플러스를 런칭시켰다. 그 이후 로타리와 파트너 단체들은 연간 35 만 건에 달하던 소아마비 발병건수를 250 건 이하로 떨어뜨리고, 지구 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로타리는 지금까지 미화 12 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전세계 122 개국의 20 억 명 이상의 아동들이 백신을 투여받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소아마비 퇴치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로타리의 주창 활동은 각국 정부가 90 억 달러의 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 1988 년에 결성된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로타리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유니세프, 게이츠재단, 세계 각국 정부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로타리는 주창 활동, 기금 모금, 자원봉사자 모집, 인식 확대 등의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동하는 로타리. 전세계 100 만 명이 넘는 로타리 회원들이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기부하고 있다. 매년, 수백 명의 로타리안들이 소아마비 취약국가들에서 개최되는 면역 활동에 보건 요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참가하고 있다. 로타리안들은 유니세프와 같은 파트너와 협조하여 지리적 요건이나 분쟁, 기아 등으로 고립된 지역에 소아마비 퇴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준비, 배포하고 있다. 로타리 회원들은 동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백신 운반을 돕고 기타 필요한 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요만큼' 캠페인. 로타리는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공공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요만큼(This Close)'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유명인사들이 취지에 공감하여 기꺼이 참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빌 게이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아치 판자비, 청룽, 잭 니클라우스, 싸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친선대사들은 공익 광고나 소셜미디어,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공공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